

하반기 전북도정, '첨단산업 도약' 방점

도정 핵심 현안·공모 선제 대응
공약 점검 등 도정 총력
도민 체감 성과 속도전 지시
수해 복구·하계 안전 대비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하반기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24일 열린 합동간담회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진행되는 도정의 변곡점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전북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연구 국무원 등 부여된 여건들을 잘 활용해 전북을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 2차 추경 이후 본격화되는 중앙 공모사업과 관련, "전북에 꼭 맞는 신규사업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한 발 앞선 전략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이 강점을 지닌 분야는 더욱 선명하게 부각하되,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

께 치밀하게 보완해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도정 3주년 성과브리핑, 도민과의 대화 등 그간 도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라"며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지난 주 폭우와 다가올 폭염에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집중 호우로 인한 가축 폐사, 농작물 침수 등 현장의 상처를 조속히 치

유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수난사고 예방과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하절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다. 김지사는 아울러 출자, 출연기관장들에게 "정책이 도민의 삶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현장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체육유망주 발굴, 결실 맺다 영재선발대회 첫 국가대표 배출

전북체육회 영재육성 성과
학교체육 기반 닦아 발굴
선발대회 3위 중산초 김효담
배구 U-12 국가대표 발탁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24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전북 체육의 근간이자 체육 발전의 초석인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영재선발대회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북체육회 중장기 체육 육성 프로젝트 '영재선발대회'서 입상한 전주 중산초 김효담(6년) 선수가 유소년 배구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사진=전북체육회>

이 사업은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 중 운동에 재능이 있는 숨은 체육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강선 전북도 체육회장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5회 선발대회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체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최근 영재선발대회 출신의 학생 선수가 첫 국가대표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배구 명가 전주 중산초등학교 주장을 맡고 있는 김효담(6년)이 12세 이하(U-12) 한국 유소년 배구 국가대표로 뽑힌 것. 김효담은 초등학교 3학년때 제2회 체육영재선발대회에 출전, 뛰어난 기초체력과 운동체력을 바탕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운동에 재능이 있던 김효담은 전주 중산초로 전학을 가 배구에 입문

한 뒤, 세터와 리베로의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에 대한 집중력과 이기려는 투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주장으로서 팀도 잘 이끌고 있다. 전주 중산초 배구부 최애리 지도자는 "올해 처음으로 초등배구연맹에서 주축 주관한 U-12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효담이가 뽑혔다"며 "발전가능성이 매우 무한한 선수"라고 말했다. 최 지도자는 학생 선수가 부족한 현 체육계 상황에서 체육영재선발대회가 단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 광역교통 새 시대 연다" 24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 정책 토론회에 김관영지사와 이성윤 국회의원, 문승우 도의장, 강희업 국토부2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법 통과... '국가책임' 명문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산비 반영·비보험 작물 포함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재해보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농어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지속가능한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복구비로 대파대, 종자대 등 일부 항목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그쳐, 재해 발생 시 농어민의 생업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시켰다.

또 기존 재해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비보험작물에 대해서도 별도 피해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고,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측불가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미적용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 ▲농어업인의

손해평가인 교육 요구권 보장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두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의면했던 농어민의 절박한 요구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바로 세운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민생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

관의 유임 직후 당정 간담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대책법,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농업민생 관련 6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협의하는 등 농업민생 입법 전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다음 호는 8월 4일자로 발행됩니다.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북은행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JB카드 신청하기

크레딧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또는 부담경감크레딧.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 매출 규모 :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3억원 이하
- ✓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5. 5. 1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신청기간 2025.7.14(월) 9시부터 ~ 11.28(금) 18시까지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방식 소상공인 1인당 등록된 카드로 지급(2025.12.31까지 사용)

사용항목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OPEN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유의사항]

- ※ 연회비 범위 0원 ~ 120,000원
- ※ 계약을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3%(p), 법정 최고금리(연20%)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거래 연체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저금 대출금리(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중 높은 금리 적용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카드 납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연체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필요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신금융평점 심의일제 2025-02b-10111호 (2025.07.03~2025.12.31)

전북은행

道, “대광법 개정안 통과, 전북에 새로운 가능성”

도의회기행위-전북연구원 추진과정 공유-광역교통망 구축과제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와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가 24일 오후 전주대 JJ아트홀에서 전북도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전북 교통정책의 전환점이자, 교통의 권리를 되찾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하 대광법) 개정 추진과정과 의미를 공유하고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로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장 최형열 도의원이 대광법 추진 경과보고를 하고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이 '광역교통법 개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또 2부에서는 전주대 권용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본부장이 '광역교통계획의 이해와 전주권 적용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대도

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재순 국장, 전북자치도 김형우 국장, 전북연구원 김상연 선임연구원, 국토연구원 김승훈 부연구위원, 전주시정연구원 김관용 연구위원이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이상운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전북과 전주는 광역교통 정책에서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며 철저하게 소외당해 왔지만,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나아가 출발선에 섰다”고 밝혔다. 또 이남호 원장은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광역교통 오지'라는 설움을 안고 살아

온 전북특별자치도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며 “이번 논의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형열 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시작된 입법의 길은 단 한 순간도 순탄치 않았지만, 우리 지역 의원들의 굳건한 연대와 공조로 역사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대광법 개정의 성과를 도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협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장정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순창 찾아 수해 복구 지원

지역위원회-청년위원회 등 130명 당원 참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순창지역에서 대규모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전북특별자치도당 산하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등 130명의 당원이 참여해 피해 농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번 복구 지원은 전북도당 민생지원팀이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순창군과 협력해 피해 실태를 확인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침수 농가, 주택 피해 등 주민들

의 요청을 반영해 신속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순창군 인계면과 금과면 일대에 당원을 배치해 현장 중심의 복구 작업에 나섰다. 복구 활동은 인계면과 금과면 2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인계면 블루베리 농가에서는 남원 장수 일일 순창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이 투입돼 묘목 정리와 농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고, 금과면 딸기하우스 피해 현장에서는 나머지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조별로 나뉘어 하우스 물청소, 잔해물 정리 등 복구 작업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복구 지원에 필요한 장갑, 장화, 수건, 음료, 도시락 등 물품 일체를 순창 지역 상권을 통해 직접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순창지역에서 대규모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사진=민주당 전북도당> /장정철 기자

민주당 “김건희황제조사요구...정신못차려”

“휴식·조사 시간 제한 기막혀” 받은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으나 일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그 많은 혐의를 저지르라고 등이라도 떠밀었나?”면서 “휴식과 조사 시간 제한 등을 요구하며 여유롭게 황제 조사를 받겠다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꼬집었다. 또 “본인이 좋다고 벌인 일들이 다”며 “그런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의 복장을 터트리고 있으니 정말 ‘김건희스럽다’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문 대변인은 “피의자 김건희는 집에서 드러누워서 과일을 먹던 태평스럽게 지내는 생활을 더 이상 바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듭 김씨를 비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각 시군 피해 규모 고려 배분 완료할 예정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는 △농작물 침수 104.1ha △주택 침수 15동 △공공시설 피해 14건 등 총 45건이다. 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에 대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와 시군이 모든 가능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복구와 생활 안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도민 참여형 올림픽 유치 기원 이벤트

전북현대 흥경기 연계 축구팬 참여 열기 고조

전북특별자치도가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전북현대와 강원FC의 흥경기에 맞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숲-골인이벤트'를 열고, 도민과 함께 유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행사는 전북도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도민과 축구팬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경기장 외부 광장에 마련된 특설 골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공을 차 넣는 '숲-골인 챌린지'가 펼쳐져 호응을 얻었고, 올림픽 관련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장 곳곳에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엠블럼과 슬로건이 담긴 홍보물이 설치돼 관람객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끌어냈으며, 참여자들은 올림픽 유치에



전북특별자치도가 23일 K리그 전북현대와 강원FC의 흥경기에 맞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숲-골인이벤트'를 열고, 유치 열기를 끌어올렸다. <사진=전북자치도> /장정철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핵심 인재 양성 정치교육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차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및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 혁신정치학교 전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의 핵심 인재 양성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실천형 정치교육 과정으로, 전북도당이 전국 시도당 중 최초로 시범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국내 정치철학과 실무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박우용 교수(전남대 철학과), 배기선(김대중재단 사무총장) 등의 특강 이외에도 실질적인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이 함께 구성됐다. 중앙당 교육연수원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전북도당 정도상 위원장은 “시민과 지역에 기반한 정치인을 키워내는 실험이 전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지역순환형 먹거리체계 필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고창 웰파크 호텔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정책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는 전북먹거리센터의 먹거리정책 브리핑에 이어 특강자로 초청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산물 생산유통환경 변화와 지역먹거리 계획'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근 농산물 생산 기반 약화, 유통의 소규모화·다양화, 식량자급률 하락 등 농업의 구조적 전환을 지적하고 먹거리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순환형 먹거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 중심의 지역먹거리 계획을 통한 정책 실현과 중소농 및 고령농을 포용하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 오픈테이블에서는 △지역먹거리 공공대 확산 △지역먹거리 경쟁력 확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행정 담당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획생산의 안정적 운영, 시군 간 연계 체계 구축, 먹거리 돌봄 등 다양한 현장의 과제와 정책적 개선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 먹거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들을 제시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2025 먹거리정책 통합워크숍은 단순한 교류의 자리를 넘어, 전북 먹거리정책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약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지구도 시원한 여름휴가 함께 가요!

출발 전 살펴봐요!

- 에너지 새고 있는 곳 확인
- 불필요한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 냉장고 비워 전력손실 막기

이동 중 실천해요!

-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 하기
- 승용차에 불필요한 짐 싣지 않기
-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기

휴가지에서 실천해요!

- 재활용 분리수거 실시 하기
- 일회용 사용 자제 하기
- 음식을 쓰레기 구분해서 버리기

전주세계소리축제 자원활동가, 공식활동 돌입

80여명 '소리천사' 오리엔테이션 진행
관람객 안내 등 역할 수행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자원활동가인 '소리천사'들이 합찬 결속을 다지며 공식 활동에 들어선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양준, 이하 소리축제)는 2025 소리축제 자원활동가 '소리천사'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리천사' 발대식은 지난 2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소리천사'로 선발된 80여 명은 오는 8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운영을 위해 축제 기간내내 축제장을 돕는 자원활동가이다.

특히 이들 '소리천사'들은 축제를 성공으로 향하게 하는 숨은 주역들이다. 발대식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환영 영상 메시지를 시작으로 김희선 집

행위원장 축하, 소리천사 대표자 선서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소리천사' 전원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축제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결의를 다졌다.

이어 실질적 활동 준비 위한 전체 교육과 특별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진행됐다.

실질적 활동에 앞서 '축제 프로그램, 티켓 운영, 공연장 위치, 실무 중심 공통 교육, 특별 역할 세부 교육, 조장·부조장 선출, 활동 일정 공유' 등도 이뤄졌다.

또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소리천사들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 시간도 가졌다.

소리천사들은 오는 7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에서 재난 종합 체험과 응급 처치 등 전문 안전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이후 본 축제 개막일 하루 전인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축제 현장 곳곳에 배치돼 관람객 안내, 공연장 운영 지원, SNS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자원활동가인 '소리천사'들이 합찬 결속을 다지며 공식 활동에 들어선다. <사진=전주시>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소리천사는 소리축제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며 "소리천사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모여 관람객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전하고 축제 현장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판소리, 전통음악, 월드뮤직, 클래식,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진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자원봉사 문화 확산 논의

우범기 시장, 대학생들과 자원봉사 활성화 의견 나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대학생 봉사단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24일 전주권 4개 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소속 대학생 20여 명이 전주시청을 방문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민·관 협력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지전대학교 등 4개 대학 새마을동아리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대학생 새마을동아리는 환경정화 활동과 노인 대상 이·미용 봉사,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오

고 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활동 사례 공유와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MZ세대 감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이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봉사활동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끝나 전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은 "평소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봉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로서 지역에 힘이 되는 청년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대학생 봉사단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전주시>

우범기 전주시장은 "봉사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라며 "지역을 위

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열정과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 사전 예방 관리 철저

음식점 40곳 대상 위생점검 위생취약시설 수거 검사

전주시가 고온 다습한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장마철 이후 식재료 오염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2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99건(환자수 2481명)에 달한다.

특히 여름철은 구토와 복통, 발열, 설사 등을 일으키는 살모넬라와 병원성 대장균, 캄필로박터 제주니 등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식재료 취급 및 조리, 개인위생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식중독 발생 우려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 관리에 나섰다.

먼저 시는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 5대 수칙 '손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소독하기' 등

실질을 당부했다.

더불어 시는 이달 중순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과 병면을 취급하는 업소와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있는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김밥과 토스트 취급 음식점 등 4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또 시는 현재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운반음식 공급업체 등 7곳을 위생취약 시설로 분류하고, 수거 검사 및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식재료, 종사자 개인위생 등 위생 상태 △냉동·냉

장 제품 적정온도 유지 및 소비(유통)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 무신과 제품 사용 여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여름철 개인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위생 지도와 식중독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자원봉사자들, 광주광역시 수해복구 지원 '구슬땀'

수해 현장 시설능가 정리 비닐하우스 철거

전주시 자원봉사자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해복구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사단법인 전주지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24일 전주지역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광산구 침수 농가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를 위한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해복구 활동에는 전주시 자원봉사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와 '디딤돌', '아름답고진정함자원봉사자모임'의 소속회원들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토사가 비닐하우스에 쌓이고 시설이 부서진 광산구 동곡동 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 내부를 정리하고, 부서진 시설을 철거하는 등 빠른 복구 작업에 일손을 거들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계자는 "복구 지원에 참여해주신 전주시와 전주시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경진 전주지원봉사센터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아픔은 나누면 빨리 치료되고, 피해는 함께 하면 극복될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



과 함께 빠른 복구를 돕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21개국 재외동포, 전주서 전통문화 '만끽'

8월 1일까지 전통문화연수 문화교류가교 역할 기대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재외동포 세계 21개국 아동·청소년과 한글학교 교육자들이 고국의 문화를 배운다.

전주시는 세계 21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아동·청소년과 한글학교 교육자들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한국전통문화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연수는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 방식으로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아동·청소년 연수', 24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한글학교 교육자 대상 연수'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14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30명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연수 프로그램 입교식을 마치고 전주로 내려와 9박 10일간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K-POP 댄스 △사물놀이, 부채춤, 민요 △한지공예, 비빔밥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한옥마을 탐방 △전통문화연수원 예절교육 등이다.

특히 재외동포 아동·청소년들은 24일 발표회를 통해 전주에서 배운 부채춤과 한산춤, 민요 등을 가족과 친지 앞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이러 시는 15개국 한글학교 교육자 30명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연수에서는 전통문화체험과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에 대한 전문가 특강, 마당극 관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통문화체험연수를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긍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 아동·청소년과 한글학교 교육자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문화 교류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조례연구, 행정 수요 부합 조례 체계 정비

조례 정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최용철 의원은)는 지난 23일 '전주시 조례 정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 연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주시 조례 전반을 대상으로 실효성·적합성·운영 실태 등을 진단하고, 시민 삶과 밀접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조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과 추진 방향, 전주시 조례 전소조사, 정비 기준 체계화,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입법 절차 개선, 국가정책과 연계한 신규 조례 제정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향후 조례연구회는 △전주시 조례 전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진단 △유사·중복 조례, 실효성 부족 조례 등에

대한 정비 기준 수립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해소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입법 절차 개선 방안 마련 △저출생, 디지털 전환 등 국가 아젠다를 반영한 신규 조례 제정 제안 등 총 5개 분야 과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철 조례연구회장은 "조례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자 핵심 기능"이라며 "이번 연구가 전주시 조례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연구회는 전주시 조례 정비 및 입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제안하는 의원 연구단체다.

연구단체 회장으로는 최용철 의원, 최명철(감사), 천서영(사무국장), 김현덕, 이기동, 최주만, 이남숙, 박선전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 교통경찰, '숙취운전' 음주단속 강화

8월 31일까지 출근길 진행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취 운전 등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공공기관, 공단 주변,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의 아침 출근길에 진행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 단속이 시작되고 전주에서만 면허취소 수치(0.08%이상) 2명, 면허정지(0.03%-0.08%미만) 수치 1명이 전날 음주 여파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숙취 상태에서 운전은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저하되며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술자리가 있다면 대중교통,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고 다음 날 출근길도 운전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즐거워 휴가철 지인·가족들과 술자리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조성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 제26회 건축문화상 공모...창의 인재 발굴

사용승인·계획2개 부문 공모 쇼츠 공모전 등 다채롭게 개최 '올림픽 부스' 등 시민 참여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모를 시작하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 인재 및 작품 발굴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의 대표 건축 행사로, 도내 최고 권위의 건축상으로 평가받는다.

건축문화상 공모는 △사용승인 부문 △계획 부문으로 구성된다. 사용승인 부문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공공·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며, 가설건축물이나 리모델링 사례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조경관리실태평가와 연계해 도시 녹지 공간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사례도 함께 평가한다.

계획 부문은 전국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자유 주제의 건축계획 또는 기술계획 작품을 공모하며, 창의성과 실현성이 중점 평가된다. 젊은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지역 건축문화에 더

하는 기회로, 학생 부문 상금도 지난해 4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작품 접수는 10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전북도청 공영장 1층 로비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수상작은 11월 5일 발표되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건축문화제' 기간 중 열릴 예정이다.

건축문화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 외에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건축문화제는 시상식 외에도 수상작 전시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진다. 올해 주제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창조적 비전을 제시하며, 건축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로, 전북의 미래를 건축을 통해 조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쇼츠 영상 공모전'도 함께 열리며, 짧고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알리는 데



전북도가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모를 시작하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 인재 및 작품 발굴에 나선다. 사진은 25회 시상식. <사진=전북자치도>

중점을 둔다. 아울러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범용 특별부스'도 함께 운영돼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를 포함한 도내 5개 건축 관련 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로

마련된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의 건축이 우리 삶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관광문화콘텐츠 협력 강화 '머리 맞대'

관광문화콘텐츠 소통의 날 개최 완산병커 현장 방문 현황 취회 융합형 사업 발굴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관광과 문화, 콘텐츠 산업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는 24일 관광산업과, 문화산업과, 전북관광재단, 전북콘텐츠 융합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제3차 관광·문화·콘텐츠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2월 개관한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정취한 후 완산병커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미 있는 의견을 나눴다.

완산병커는 과거 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해 문화예술·콘텐츠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다양한 전시·공연과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짧은 시간에 새로운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북자치도관광기업지원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광과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관광·문화·콘텐츠 소통의 날'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관광과 콘텐츠 간 융합형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합동 '네트워킹 데이'를 정기적으로 운영, ▲관광기업과 콘텐츠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합동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출연기관 간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간



전북자치도는 24일 관광산업과, 문화산업과, 전북관광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제3차 관광·문화·콘텐츠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미정 도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은 이제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복합산업이다"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북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신협재단, 고령사회 대비 노인 화상예방 '앞장'

취약층 화상 치료·예방 강화 베스티안재단 협력으로 인연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신협재단)은 (재)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대표 설수진, 이하 베스티안재단)와 함께 지난 23일 화상예방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신협재단 김윤식 이사장과 베스티안재단 설수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20년부터 협력해온 취약계층 화상환자 치료 지원 및 노인 화상예방교육 등 주요 사회공헌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협과 베스티안재단의 인연은 2020년 저소득 화상환자 및 소방관을 지원하는 'S.A.V.E 캠페인'에 관한 신협재단은 화상환자 11명에게 총 3,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양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노인화상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후원했다.

그 결과 전국 노인 및 관련 종사자 26만 명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2022년부터 신협재단의 후원으로 3년간 진행되고 있는 노인 화상예방교육 사업은 대면 교육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화상예방 전문인력 양성, 워크북 및 교안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교육 영상 제작, 노인화상예방교육 전용 앱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고령자 대상 예방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김윤식 신협재단 이사장은 "노인 화상은 높은 사망률과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만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 화상예방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협은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지난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원을 시작으로 전남 담양과 광주 일대 복구 작업에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일손돕기도 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전북농협, 전남 수해 돕기 나서 담양·광주 일대 농가 복구 지원

지난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담양과 광주 지역에 전북농협이 발 벗고 나섰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남원을 시작으로 전남 담양과 광주 일대의 수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 등 긴급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전북농협이 단순한 도내 지원을 넘어,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을 실천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지난 폭우로 전

남 지역의 피해가 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복구 계획을 세웠다"며 "전북농협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원에 참여한 전북농협 임직원 100여 명은 침수된 딸기하우스 등을 정비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담양의 피해 농가는 "비닐하우스가 망가지 막막했는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준 덕에 큰 힘이 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전국적인 농업 재해 발생시 '농협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 아래 지속적인 연대와 지원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농어촌공사, 남원 침수 피해 딸기농가 수해 복구 작업 지원

전북본부 5개부서 100명 참여 상토 퍼내며 재배기반 복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4일 5개부서 1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원시 송동면 신협 딸기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번 피해 농가는 약 1,200평 규모의 딸기 비닐하우스로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상토가 유실되고 재배 기반이 크게 무너진 상황이었다.

전북본부 직원들은 작업장비와 물품을 준비해서 이른 아침부터 침수된 상토를 퍼내고, 뒤엎긴 시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농가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활동을 펼쳤다.

복구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린 김동인 전북본부장은 "전북본부는 단순한 재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긴급 복구 지원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농어촌 현장에 발 빠르게 응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자연재해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구 지원과 현장 밀착형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24일 침수피해를 입은 남원 딸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사진=농어촌공사>

/김은지 기자

전주농협, 전주명품복숭아축제 성료 '도심 속 화채 한 그릇'

전주복숭아 우수성 알리 직거래 행사로 농가 소득↑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24일 전주풍납문 광장에서 제27회 명품전주복숭아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전주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주농협의 대표적인 직거래 행사

다.

이날 개막식은 명품전주복숭아축제 추진위원장이자 전주농협 조합장인 임인규 조합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우범기 전주시장, 안찬우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중반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복숭아 화채 나눔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복숭아를 활용해 만든 시원한 여

름 화채를 현장에서 즉석으로 나누며, 많은 시민들께서 전주복숭아의 맛과 가치를 함께 나누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사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축제와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농협은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직거래 행사와 가공·유통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인규 조합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김은지 기자

/김은지 기자

전북 고교생, 뉴욕으로! 세계 속으로!

미국뉴저지 디킨슨 대학교서 '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가

전북의 고등학생들이 미국 뉴저지에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생 78명이 이달 6일까지 미국 뉴저지주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2025 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가를 위해 25일 출국한다.

이번 캠프 슬로건은 '리드 더 월드, 디자인 유어 퓨처(Lead the World, Design Your Future, 세계를 이끌고, 미래를 설계하다)'로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프 동안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에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글로벌 기술 및 사고방식을 주제로 워크숍 및



도내 고등학생 78명이 이달 6일까지 미국 뉴저지주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2025 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가를 위해 25일 출국한다 <사진=전북교육청>

모둠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습 결과를 모의 유엔을 통해 확인하며 비판적 사고력·문화 간 협력·전략적 소통 역량을 기르게 된다.

사전교육 단계부터 스스로 주제를 탐

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출발 전부터 진로와 미래 설계에 대한 고민을 심화한 점이 이번 캠프의 특징이다.

또한 학생들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와 글로벌 대학 강의 참여 △뉴욕 현대미술관·브로드웨이 공연 체험 등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직접 체득한다.

전주제일고등학교 최아련 학생은 "이번 캠프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뉴욕이라는 도시가 품은 다양성 속에서 진로를 다시 묻고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성일고등학교 문준오 학생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우고 싶다. 캠프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성민 기자



호남권 시도교육청 감사팀 협력체계 구축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목표

전북을 비롯해 호남권 3개 시도교육청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부터 25일까지 순창 쉼랜드에서 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참여하는 '호남권 감사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은 호남권 교육청 간 감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공동 목표로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3개 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70여 명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세감사 실무 및 감사보고서 작성 기법 등 감사연구원 감사 특강 △교차 감사 등 시도교육청 간 소통·협력 강화 방안 협의 △마음 건강 치유프로그램 활동 등이 있다.

특히 업무 담당별 모둠활동을 통해 주요 감사사례, 핵심 이슈, 착안 사항, 감사 현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기간 간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민 기자

교원단체들 "교사 보호하는 법령 제도 필요"

학생 음란 메시지 받은 여교사 '교육활동 침해 아님 판정' 분노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아님'을 판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성명서를 통

해 "이번 결정은 교원지위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침해 행위만을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의 보호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며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

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23일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도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내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교보위는 이 같은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고, 보낸 시간이 방과 후

라 교육 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본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교육감 권한대행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제7회 전북도지사배 전국장애인당구대회 개최

전주 동빌리어즈당구장서 열린

제7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당구대회가 전주 동빌리어즈당구장에서 개최식을 시작으로 24일부터 이틀 간의 열전을 벌인다.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관영)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당구협회(회장 윤세호)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300여명의 선수단 및 관계자가 참가해 섬세한 전략과 집중력으로 승부를 펼치고 있다.

장애인 당구는 BIS(입식), BIW(휠체어) 등급에서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누어 선수부 개인전 단식(1쿠션, 3쿠션)

과 팀전 단,복식(3쿠션)으로 구성된다. 도장애인체육회 조형철 사무처장은 "당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다"며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길 바라며, 앞으로도 당구를 비롯한 장애인 선수들의 기량 향상 및 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대, 건강한 조직문화 위한 갑질 예방교육 실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건강한 소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3일 JBNU 인터내셔널센터 7층 동행홀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에는 안영진 변호사(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를 초청해 '슬기로운 청렴생활-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이번 특강에서는 갑질에 대한 개념과 사례로 살펴본 공공기관 갑질 가이드

라인, 부당한 업무지시 대응 사례, 인사 청탁 사례 등이 제시되어 전북대 구성원들의 높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청렴은 신뢰 받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직문화의 기본 중 기본이기에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고3 대상 '학생부종합전형 전문상담'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학생부종합전형 전문상담'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생부 중심의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희망 대학과 학과에 대한 1:1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현직 입학사정관을 비롯해 도내 대입지원단 팀장급 교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1명이 상담진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

상담은 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열람실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제로 196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는 25일부터 전북진로진학 누리집에 접속,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배너를 클릭 후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하며 참여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희망 대학 및 학과 정보를 준비해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입 전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특성을 정확히 분석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해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 학생의 강점을 분석하고, 희망하는 대학 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폭염 속 건강 지키는 건강수칙

- 수분 섭취는 충분하게. 탈수 증상 미리 막아야
- 더운 낮 시간대(낮 12시~오후5시) 야외활동 피하기
- 일기 예보 확인해 기온 등 날씨 정보 숙지해 행동해야
- 야외활동을 할 경우 양산 등 챙겨 체온 유지 신경써야
- 온열질환 조짐 보이면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 덮어 체온!
- 두통, 어지럼증, 숨차고 구토 증세 있다면 시원한 곳 휴식
- 덥다고 무턱대고 찬 음식 먹다간 소화장애 가능성도



정읍시 열린 전북 4H 한마음대회, 1000여 명 화합의 장

정읍에서 열린 제33회 전북 4-H 한마음 대회가 도내 14개 시·군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4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환경을 지키는 농업! 미래로 향하는 올림픽! 전북 4-H와 함께!'를 주제로 진행됐다. 저탄소농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염원을 함께 담아 마련됐다.

행사는 4-H 서약 제창으로 시작돼 공로자 표창과 이학수 시장의 환영사, 축사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시·군 회원들의 장기자랑과 어울마당이 펼쳐져 화합의 시간을 더했다. 특히 행사장에서는 정읍의 대표 농특산물 전시와 함께 자생차와 지황차 시음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정 (사)한국4-H전북특별자치도본부 회장은 대회를 통해 "지역 농업을 묵묵히 이끌어온 4-H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가 경험을 나누고 농촌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환영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농업인의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정읍시가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모범음식점 등 12개소에 경사로 설치...보행약자편의증진

익산시가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무장애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익산시장에인종합복지관과 함께 '경사로 지원사업'을 추진, 모범음식점 등 12개소에 경사도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사로 지원사업'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 높이차를 해소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시는 대물림맛집과 모범음식점과 같은 인증음식점 60여 곳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적합 여부를 검토해 최종 12개 업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는 ㈜성원건설(대표 이종원)이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기탁한 성금 1,000만 원이 활용됐다. 해당 금액은 경사로 설치 비용으로 전액 지원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지구에 예초·전지작업

정읍시가 무성한 수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개선 완료지구를 중심으로 예초와 전지작업에 나섰다.

이번 정비 작업은 남산, 평화, 중사, 입석, 신흥, 대실, 당현 등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각 지구 내에는 소공원 18개소와 공영주차장 23개소가 조성돼 있으며,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가 이뤄진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우기 기간 중 잡초와 수목이 급격히 자라면서 통행 불편, 해충 발생,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초·전지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에 앞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구별 상태를 면밀히 파악했고, 민원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도 맞춤형 정비계획을 세웠다. 또한 전문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이뤄지도록 준비 중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입암단곡 간선임도 개설 본격화

23일 주민설명회 개최 2026년까지 단계적 조성

정읍시가 입암면에 첫 간선임도를 개설하며 산불 예방과 산림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지난 23일 입암면 반월마을에서 주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입암단곡 간선임도 개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개요와 추진 일정, 주민 협조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선임도 사업은 입암면 연월리 반월마을에서 차단리 차단마을까지 약 5km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다. 올해 1차로 1.95km를 우선 착공하고 2026년까지 나머지 구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간선임도는 폭 4m 내외의 산림도로로,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진입



정읍시 입암면 간선임도 위치도

<사진=정읍시>

을 가능하게 하고 산주들의 산림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갑수록 산불 위험이 커지는 요즘, 입암면에 첫 임도가 생긴다니 정말 반갑고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임도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산림 보호와 재해 예방,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공사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제8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사전 행사

손편지쓰기 대회 개최

군산우체통거리경관협정위원회(회장 배학서)가 '제8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를 앞두고 오는 9월까지 우체통거리 전역에서 다채로운 사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가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군산우체통거리'를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사전 행사 시작은 '우체통거리기 대회'와 '손편지쓰기 대회'가 연다. 두 행사는 군산우체국·롯데몰 군산점·한길 문고에서 오는 8월 15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참여는 비치된 용지에 그림이나 손편지를 작성한 후 우체통에 넣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오는 9월 26일 손편지 축제 개막일에 우수작품을 뽑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축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9월까지 '군산 우체통거리 홍보관'을 방문하면 '군산우체통거리'를 기획하고 조성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우체통 모형



지 축제 개막일에 우수작품을 뽑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축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9월까지 '군산 우체통거리 홍보관'을 방문하면 '군산우체통거리'를 기획하고 조성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우체통 모형

저금통&레고 만들기 △기념 문화 상품(굿즈) 만들기 등 무료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 특히 '우체통거리' 상가 곳곳에 마련된 장소에서 경험하는 '느린엽서쓰기'는 관광객에게 의미있는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시민 목소리로 다시 태어나는 익산 기록...시민기록 도슨트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도슨트 전문 자원봉사자발대식

범취업했던 익산의 기록이 이제 시민 해설사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숨을 쉰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24일 '시민기록 도슨트 양성과정'을 이수한 20명에 대한 전문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용 익산시장과 기록관 운영위원 등이 함께해 시민 참여형 기록문화 확산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이번에 위촉된 해설사(도슨트) 20명은 오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기록관에서 전문 도슨트로 활동한다. 단순한 전시물 설명을 넘어 시민들이 남긴 기록 속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



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난 4-6월 진행된 양성 과정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 △해설 기법 △관객과의 소통 방법 등 전문 해설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두루 익혔다.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시민 기

록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해설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도슨트 활동이 기록을 남기고 공유하는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LX, 공간정보 오류 잡는다

전체 8248건 중 527건 개선

정읍시가 재난안전과 도시계획 등 각종 행정에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본격적인 품질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LX 전북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오류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LX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 국가공간정보 품질관

리 전문가로 지정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공간정보 품질 개선 업무를 수행해왔다.

공간정보는 위치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로, 지도나 항공영상 위에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 행정결정, 정책 수립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기관별 관리 기준이 달라 위치, 경계, 명칭 등이 불일치하거나 정보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오류가 반복돼,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피해

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시는 올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교통시설 부문 공간정보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체 8248건 중 오류로 진단된 527건을 대상으로 도로, 철도, 고속도로, 주차장 등의 위치와 명칭, 경계 등 핵심 데이터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시는 공공정보로서의 공간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정확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나눔공간 이전

8월1일~8일 운영 실시 중단

익산시 다이로움 나눔공간이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새 동지로 옮긴다.

익산시는 익산 행복나눔 마켓뱅크와 다이로움 나눔공간이 오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이전 작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나눔공간은 기존에 사용하던 옛 경찰서 건물에서 서동로 4길 37에 위치한 옛 동산동주민센터 건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운영은 오는 8월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시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일정과 인근 버스 노선 15개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우성아파트 인근 정류장에서 71·73·75·78·107·111번 버스를, 삼성아파트 인근 정류장에서는 109번 버스를 이용하고, 주현신협 인근 정류장에서는 34·35·36·37·44·66·69·70번 버스 노선을 이용하면 된다.

익산 행복나눔 마켓뱅크와 다이로움 나눔공간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물품 나눔 거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긴급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필품과 식료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운영 재개 후 이용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며, 관련한 문의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 목소리 직접 정책에 반영

△인구정책 관련 행사 참여 등이다.

특히 이번 시민참여단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군산시가 추진하는 배려와 포용 시민화합운동을 시민 스스로 확산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희망자는 오는 8월 6일까지 군산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jeonsh101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나이, 활동 경력,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추후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금연구역 대폭 확대...간접흡연 피해 차단

익산시가 시민 건강권 확대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익산시보건소는 금연 문화 확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캠페인과 버스광고·연중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가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계도·홍보



군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여성폭력 범죄 대응안 논의

이 과정에서 2025년 시행계획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내실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의 내용을 수립했으며,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담았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으로 여성이 안전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위도띠벳놀이’, 베를린에 알린다

부안군, 27일 독일 슈타츠오페 국립오페라극장서 ‘고섬섬’ 선봬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과 공동주최로 독일 베를린 슈타츠오페 국립오페라극장(Staatsoper Berlin)에서 창작무용극 ‘고섬섬’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창작무용극 ‘고섬섬’은 부안군 위도에서 전승돼 온 전통 해양의례 ‘위도띠벳놀이’를 현대적인 무대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부안 위도의 자연경관,

역사, 예술 그리고 어부들의 삶을 유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해 관객에게 풍성한 문화적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가무형유산 제82-3호인 ‘위도띠벳놀이’는 위도 어민들이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며 파배를 바다에 띄우는 의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신앙과 삶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이다. 이번 공연은 부안의 전통문화가 세계적인 공연예술의 중심지에서 조명받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연이 열리는 베를린 슈타츠오페 국립오페라극장은 1742년 설립된 유서 깊은 공연장으로, 유럽 공연예술을 대표

하는 상징적인 공간 중 하나다. 또한, 부안군은 이번 공연과 함께 극장 로비에 부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 10여 점을 전시해, 현지 관객들에게 부안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함께 소개해 부안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공연은 부안 전통문화의 세계화는 물론, 지역 문화유산이 세계 예술의 중심 무대에서 인정받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부안군은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과 세계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여름방학 돌봄 놀이터 운영

비만 예방 프로그램 진행

고창군보건소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비만 예방 프로그램인 ‘건강한 여름방학! 돌봄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성장기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활기찬 신체활동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된 건강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야생식사 실천 방법인 ‘샌드위치

만들기’, 뉴스포츠 신체활동(스케터블, 피구, 던지기 놀이 등)으로 꾸려져 있으며 영양사와 운동처방사가 직접 참여해 분야별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건강 교육을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즐겁게 배우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방학기간 취약 아동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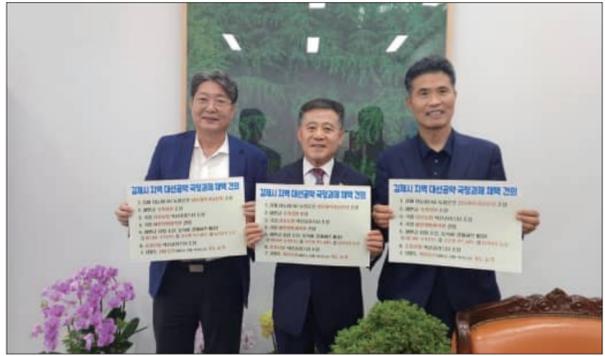
고창군, 종합민원과·국토정보공사 민원응대 친절교육

고창군이 존중과 배려로 신뢰받는 민원 행정 실현을 위해 종합민원과 전 직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파견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최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안전건설국 행정회 국장이 강사로 민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중점을 뒀다. 교육과정에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와 친절한 언어 사용, 전화 응대 시 요령 등 실무 중심의 내용 등에 대해 다뤘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내용들로 공직자 민원 응대 시 존중과 배려의 이미지 형성, 반복 민원·악성 민원 발생 감소, 불필요한 갈등 상황 예방 및 완화,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의 정서적 안정 확보 등에 기대를 보이고 있다. 행정회 고창군 안전건설국장은 “공직자의 한마디의 말과 행동이 군민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시작점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실천을 통해 고창군민의 따뜻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7대 대선공약 국정과제 관철 건의

정성주시장 ‘세부사업으로 반드시 채택’ 요청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김제시 지역 7대 대선공약을 국정과제 세부사업으로 반드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김제시 지역 7대 대선공약을 국정과제 세부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24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김제시 미래 성장 동력원을 담은 7대 지역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김희욱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빠르게 대처해 왔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인수위원회의 성격을 띤 조직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국정 기조를 설정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각 지역의 대선공약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경우 향후 국가사업으로 관철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시는 국정과제 대응 TF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6월 중순부터

정부 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 정책동향 파악 및 분석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지난 16일 부시장 주재 국정과제 대응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에는 이원택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과 유준병 국회의원실을 찾아 7대 지역 대선공약에 대해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건의와 협조를 구했다. 또, 지난 23일, 정 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 면담을 통해 김제시 7대 지역 대선공약인 △김

제 지능형(AI) 농업로봇 첨단과학기술 단지 △새만금 국가정원 △국립 치유농업 혁신클러스터 등에 대해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김제 지역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은 김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며 “선도적으로 준비한 정책들이 새 정부 국가비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해경, 유관기관 합동 인명구조 훈련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7월 22일(화) 전북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에서 부안군청, 부안소방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위원회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변산해수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수욕장 중 이용객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곳으로, 특히 지난 19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야간 운영이 예정돼 있어 치안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훈련은 해상에서 입수객 2명이

유영구역에 이탈해 익수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다. 해경은 의식 있는 익수자를, 군청은 의식 없는 익수자를 각각 구조했으며, 구조된 익수자들은 소방에 인계돼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생덕 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 간 임무 분담 및 신속한 상황 전파, 구조대응 능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소비쿠폰 지급 첫 주 현장점검

김제시(시장 정성주) 김희욱 부시장이 지난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시 첫 주를 맞아 요촌동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전담장구 운영 현황 점검과 함께 ‘찾아가는 신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전 국

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비 진작형 민생지원 정책으로 지난 21일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했다.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김 부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복분자, 잔류농약 안전성 관리 ‘우수’

무작위 수거·잔류농약 성분 분석 안전성 적합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고창군 내 5개 농협에서 수매 중인 복분자 78종을 무작위로 수거해 잔류농약 463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 78종 모두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복분자는 세척 없이 섭취하는 대표 과실로, 수확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필수적이다. 고창군은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수매 복분자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 없이 모두 허용 기준 이내 또는 불검출 결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잔류농약 분석 장비 4대를 포함한 첨단 검사장비 45종을 확보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총 773건의 안전성 검사

를 수행했다. 복분자를 포함한 농산물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희망하는 고창군 농업인은 수확 1~2주 전 시료(0.5kg)를 채취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오성동 소장은 “지역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전 안전성 검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항공권 전달

총 7가정·33명 모국 방문 기회 제공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지역 4개(서해·해당화·부안·변산) 로타리클럽은 지난 23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부안서해로타리클럽(회장 신철용) 주관으로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항공권 전달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항공권 전달식에서는 총 7가정 33명의 다문화가족이 모국 방문의 기쁨을 가지게 됐으며 왕복항공권 및 여행보험 그리고 현지 교통비 등이 지원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에게 고향의 정을 느끼고 문화적 교류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임이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다문화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모국에 대한 향수를 일말이나마 해소하고 가족 간 유대감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향후에



8098부대 2대대, 고창 침수 피해 수박농가 지원

지역향토부대, 대민지원 활동 지역향토부대인 제8098부대 2대대가 24일 오전 침수 피해를 입은 대산면의 수박하우스 농가를 찾아 복구작업을 도왔다. 이번 집중호우로 고창군 대산면 하천이 범람하면서 수박하우스 8동(7131㎡)이 침수돼 자율방재단과 경찰인력 등으로 복구활동이 추진중이다. 8098부대 2대대에서는 폭염시간을

피하고, 군장병의 안전을 위해 24일 새벽시간에 복구인력을 투입해 수박 하우스를 제거하는 등 대민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진원 대대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로 지역의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된 복구활동을 통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이음지역아동센터 옛 줄포문화의집으로 ‘새 단장’

부안 이음지역아동센터가 옛 줄포문화의집에 새 보급자리를 마련하고 새출발을 알리는 개소식을 24일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김정기·김술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아동 및 학부모,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 마련을 축하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함께 뜻을 모았다. 이음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방과후 돌봄과 학습지원, 문화활동 등을 통해 줄포·보안면 등 지역 아동들의 안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이전을 통해 더 넓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돼 보다 안정적인 돌봄과 지원이 가능해져 줄포·보안면 등의 아동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권익현 군수는 “아이들이 더 밝게 웃고 더 넓은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새 보급자리 이전으로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산단 '에너지효율' 선정 전국서 2위

정부 친환경 정책사업 선정 7개 기업 고효율 설비 지원 기술세미나 등 역량 지속 강화

완주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한 '2025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2위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은 중견·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해 온실가스를 감축

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친환경 정책사업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7개 컨소시엄만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 기관으로 참여하고, 완주산단 소재 7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총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2억 9,300만 원이 보조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전력소비가 많은 공기업과 인버터 등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계측전송장치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량을 검증한다. 또한, 연간

3회 이상의 기술 세미나 및 현장학습을 통해 에너지 절감 기술과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 최대 산업단지인 완주산단이 친환경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분야는 물론, 전 분야에 걸쳐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서울과 농촌유학 확대 협력 '물꼬'

서울시교육청에 1년 확대 제안 도내 최다 유치·제도 개선 필요

순창군이 '농촌유학 1번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서울 지역 농촌유학 지원 확대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최 군수는 "농촌유학은 교육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과 정주 인구 유입까지 연결되는 정책"이라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순창군의 농촌유학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농촌유학 종료 시까지, △서울시교육청은 6개월, △순창군과 전북도는 50%씩 3년간 지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6개월 이내 단기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선 선택의 폭이 다소 좁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순창군은 2023년부터 농촌유학 사업을 본격 추진해 오며,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순창군의 누적 유학생 수는 총 88명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전체 유학생 204명 중 43%를 차지하며 도내 최다 유치 실적을 기록 중이다. 쾌적한 거주시설과 차별화된 테마형 교육 프로그램이 이러한 성과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서울시교육청 지원을 받는 전북 유학생 72명 중 순창군 유학생은 14명(19%)에 불과해, 서울 지역 학생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의 농촌유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순창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거주시설이 잘 갖춰진다면, 서울시교육청도 더욱 관심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관·정·주민·군부대까지 수해 복구 '한마음'

10여곳 복구 200여명 투입 풍산·금과면 등 복구 집중

순창군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주당 전북도당, 군부대, 지역 단체 등이 힘을 모아 신속한 복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군은 이날 침수 피해가 컸던 인계면, 풍산면, 금과면 일대 10여 곳의 피해 현장에 공무원 70명을 투입, 주택 및 농가 등 실질적인 복구가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피해 지역별로 분산 배치돼 주재 내·가재도구 정리 △하우스 내부 토사 제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도 순창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130명의 인력을 긴급 지원했다. 이들은 피해 복구가 시급한 현장에 투입돼 각종 정비와 청소,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 폭우 피해 지역을 공무원, 민·주당 전북도당, 군부대, 지역민 등이 힘을 모아 복구 작업을 마무리했다. 피해 복구 작업 중인 최영일 군수. <사진=순창군>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7733부대 3대대 최영배 대대장을 포함한 장병 40명이 참여해, 풍산면 소재 한 고령 주민 주택에 대한 대민 복구 작업이 실시됐다. 복구 대상 주택은 목조 슬레이트 구조의 단층 주택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내부 침수와 외부 토사 유입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군 장병들은 주택 마당의 토사 제거와 내부

물품 정리 등 복구에 힘을 보탤 예정이며, 최영일 순창군수도 현장을 찾아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복구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양지천과 경천 일원에서 지역 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하천 정비 활동도 진행됐다.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부유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소셜아이어워드 기초자치단체 SNS '대상'

인터넷 전문가 4천명 평가 블로그·인스타그램 2관왕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소셜아이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아이어워드위원회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비주얼,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5개 분야에 대해 4,000명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남원시는 '피어나다 남원'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중심으로 블로그는 정보 중심의 포스팅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카태고리를 단순화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인스타그램은 피드 디자인을 통일해 보다 직관적으로 정보 제공하였고 시민 참여와 릴스 콘텐츠를 활성화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



남원시는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남원시>

과 소통하려는 전 직원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남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안부살핌 우편'이 목숨 살렸다

'안심하이' 서비스 집배원 정기방문 고립 어르신 구해

남원시는 최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안심하이' 사업을 통해 고립 가구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평소처럼 우편물을 배달하던 남원운봉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늘 집에 계시던 고립 가구 어르신이 응답하지 않고, TV가 없는 집에서 미약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 안을 살피던 중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즉시 119에 신고한 집배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독거노인은 급급차를 타고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운봉 우체국 박정현 집배원은 "5월부터 주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을 잘 알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랐던 분위기에 이상함을 느껴 신속



운봉우체국 박정현 집배원은 생필품 대면 배송으로 방문하던 어르신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신속 대응했다.

히 살렸다"라며, "누군가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며, 어르신들이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안심하이' 사업은 남원시와 남원우체국이 협력하여 고립 가구에 소규모 생필품을 대면 배송하면서 집배원이 건강, 위생, 주거 등 위기 상황을 살피는 돌봄 서비스로 남원시는 2년 연속 추진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원아 특별 문화공연 아동 1,000여명 참여 '성황'

완주군이 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한 특별 문화공연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공연에는 관내 45개 어린이집 아동 1,000여 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친화 체험관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총 3차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1차 공연은 다양한 캐릭터와 함께 솜사탕을 만드는 '오감만족 솜사탕', 2차는 즉석 이벤트와 대형 버블을 활용한 '메가 버블쇼', 3차는 손씻기 중요성을 알리는 위생교육 인형극 '깨끗한 것은 싫어!'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올해에는 인형극 뿐 아니라 솜사탕 만들기와 버블쇼까지 더해져 3~5세 유아들도 더욱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월드비전 사업 선정 취약아동 냉방비 지원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월드비전 '아이시원' 사업에 선정돼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에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이시원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5명의 각 가정에 3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냉방비가 지급된다. 월드비전은 2019년부터 폭염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시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한 아동의 어머니는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사용을 망설였는데 올해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박기완 아동진화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가정에 대한 냉방비 부담을 줄이게 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촘촘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여름방학 맞아 '백두대간 곤충전' 열려

백두대간 자생 50종 한자리 주변 놀이·숙박시설 등 조성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자생 곤충을 전시해 곤충의 생태적 역할과 서식지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백두대간 자생곤충전'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산림청 등의 후원을 받아 녹색자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백두대간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곤충을 주제로 한 기획전으로 50여 종 1,000여 마리의 백두대간 속 곤충과 곤충을 닮은 다양한 절지동물들을 만날 수 있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함께 운영한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는 세계

의 다양한 곤충 표본 전시와 함께 남원 지리산 청정지역에 서식하는 장수풍뎠이, 대벌레, 상재홍단딱정벌레 등의 백두대간 속 신비한 곤충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리산 허브밸리'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버터플라이 워 아트, 곤충 디오라마 등 곤충 예술 작품을 볼 수 있으며, 지리산에 서식하는 살아있는 나비 200여 마리와 나비 애벌레가 전시된다. 이 밖에도 주변에는 스테이힐링 워터파크, 워케이션 숲속 놀이터, 탑승형 VR 체험장 등 놀이시설과 숙박시설이 조성된다. 이번 여름방학 특별기획전은 전 연령대 입장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 휴관(공휴일 정상 운영)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입장객은 추가 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침수 시 우회 노선 담은 '폭우지도' 배포

시설관리공단, 카드뉴스 제작 직관적 정보 전달에 초점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시 마을버스 우회 운행 정보를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폭우지도'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도로 침수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는 등 주민들이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춘 카

드뉴스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이번 제작된 카드뉴스는 이서 25면, 27면, 소양 86면, 삼례 33면 노선 등 침수 발생 시 우회가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침수 예상 구간 △변경된 승차차 위치 △도로 상황 사진 △우회 경로 지도 등을 직관적으로 담아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주군 SNS, 보도자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생명을 지키는 91일' 민관협력 자살예방 총력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생명존중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를 '자살예방 집중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민·관이 협력해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펼쳤다. 2023년 기준 남원시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1.1명으로 전국 27.3명, 전북 25.6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고령화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모두가 소중한 생명, 함께 지키는 남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소를 중심으로 경찰서·교육청·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시민단체 등 14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부터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 이번 기간의 핵심이다. 우선 실과소별 자살예방 대책 회의와 자살예방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 고위험군 발굴·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 강화에 주력했다. 읍면동에 우울·자살 설문지를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확대, 생명지킴이 경제상담소,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시민 체감형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와 함께 폐농약 회수 캠페인 실시 등 자살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주요 교량·아파트 옥상·요천 산책길 등 일상 공간에 자살예방 문구와 로고제터를 설치해 경각심을 높였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생활지원사들 '실질·체계적 노인 지원 사업'

군의회 이순덕 의원과 간담회 격무·복지수당 문제 등 애로 전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21일 삼례읍 소재 식당에서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과 완주지역자활센터 소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30명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나온 생생한 목소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덕 위원장을 비롯해 오상영 삼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태형 삼례로타리를 비롯한 회장, 최수지 삼례노인복지센터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서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

인 증가, 치매 및 중증질환 어르신에 대한 돌봄 부담, 감정노동과 체력적 소진 등 생활지원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공유됐다. 특히 생활지원사들은 △복지수당의 현실화 △가족수당 제도 도입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안정성 확보 △센타별 운영비 예산 확대 편성 △정신건강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순덕 위원장은 "생활지원사는 돌봄서비스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군의회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진안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진안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폐렴구균은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고령층이 감염될 경우 폐렴, 패혈증, 뇌수막염 등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이러한 증상이 종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필요하다.

예방접종은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 가능하며, 진안군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를 비롯해 △진안군의료원 △우리가정의학과 △마이외과·정형외과의원 △구세의원 등 4개 의원이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병원을 가면 폐렴구균 23개 혈청형에 효과가 있는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을 접종할 수 있다.

문민수 보건소장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폐렴구균 백신 1회 접종은 중증 감염의 약 50~80%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폐렴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홍삼축제' 51명 실무추진단 성공적 개최 위한 추진계획 발표

진안군은 24일 군청 강당에서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마이산 북부에서 펼쳐지는 '2025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무추진단 1차 보고회 자리를 가졌다.

주영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각 실과소 팀장 및 부팀장 5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성공적인 홍삼축제 진행을 위해 담당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부터 진행까지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이전 민원 사항과 발생 가능한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홍삼축제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오갔다.

실무추진단은 진안홍삼축제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 모든 부서가 협력하고 노력해 대한민국 대표 건강 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짐도 함께했다.

주영환 부군수는 "2025 진안홍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한 데 모아 풍성하고 재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장계면,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건강복지안전통합지원

장수군 장계면은 8월 21일까지 관내 16개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건강·복지·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사랑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사랑방은 22일 동동마을과 서동마을을 시작으로 마을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진료소 직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건강상태 점검과 복지상담을 병행 실시한다.

현장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치매선별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주민의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복지 및 건강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한다.

특히, 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치매 및 정신건강 지원사업 연계 등 공적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상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단계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장호 장계면장은 "찾아가는 복지사랑방을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건강·복지·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고원 명품 수박', 본격 출하

약 4,500톤 출하 전망 전춘성 군수, 수박 농가 애로사항 청취

최고의 품질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진안고원 명품 수박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진안군의 여름철 대표 농산물인 수박은 4-5월 식재대 비가림 터널재배를 거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본격적인 출하를 맞는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24일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장을 방문해 현장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더불어 성 출하기에 앞서 선별장을 찾은 수박 재배 농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 수박 재배면적은 총 197ha로(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 이 중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을 통해 약 4,500톤(176농가, 126ha)의 수박이 출하될 전망이다.

진안 수박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최고의 품질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진안고원 명품 수박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사진=진안군>

서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쳐 하나모마트, 롯데마트, 쿠팡, 도매시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된다.

진안고원 수박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해발 350m의 준고랭지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식감이 우수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군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유통센터 공동선별을 거쳐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동수확 작업비, 공동선별비, 운송비 보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앞으로도 진안군 대표 농특산물인 수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당도가 높고 품질이 탁월한 진안고원 명품 수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3無 기조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시동

지역 관광자원 살린 글로벌 친환경 축제 도약

무주군은 지난 23일 예체문화관 2층 전시관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지원단,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친환경축제로 29년의 역사를 지켜온 무주반딧불축제의 저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라며 "올해도 3무(無) 축제를 기조로 기후변화 속에서 대안이 되는 축제,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친환경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강조했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군 일원(등나무운동장, 지남공원, 남대천변 등)에서 개최되며,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9일간 체험·환경탐사·문화에



술·주간경관·야간조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군은 29회 축제를 '친환경', '반딧불', 'ESG', '체험'이라고 하는 반딧불 축제의 브랜드기조와 '덕유산', '태권도원', '와인동굴', '반디랜드'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살린 축제로 만든다

/무주=최의호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현장 점검

총사업비 95억 원 투입 2026년까지 구축

무주군이 기후변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무풍면 증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중인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가 24일 원예단지 기반조성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는 총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돼 2026년까지 용수·전기·통신·도로

등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핵심 기반 인프라 시설이 구축될 예정으로, 황 군수는 이날 공사 진행과 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 스마트팜 적용 계획, 그리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어 시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산 집행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스마트팜은 무주 농업의 미래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완공 이후에는 ICT 기반의 자동화 농업시설이 도입돼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올해 말까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과 임대형 온실(육묘장 1동 포함) 조성을 마무리하고 경영 실습 농업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외 저탄소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지열시스템)을 추진해 경영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분리배출 우수마을' 21개소 선정

11월까지 현장평가 읍면별 3개소 선정·시상

장수군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분리배출 우수마을 선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분리배출 우수마을'은 올 한 해 분리배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마을을 선정해 주민의 분리배출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마을 주도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총 218개 마을을 대상으로 각 읍·면별 3개소씩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21개 '분리배출 우수마을'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평가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품목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상태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 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최종 선정된 우수마을 21개소에는 마을당 30만 원의 장수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마을 입구에는 우수마을임을 알리는 현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분리배출 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을 단위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선정 우수마을은 장수읍 구평마을을 비롯해, 산서면 조장마을, 빈암면 국포마을, 장계면 중동마을, 천천면 삼장마을, 계남면 하늘마을, 계북면 양악마을이 선정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 26일' 개막

8월 10일까지 운영

임실군의 대표 여름 축제인 '2025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16일간 연중무휴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잠미원 이벤트 광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초대형 그늘돔(50m×30m) 시설을 비롯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시원하고 유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체험 콘텐츠, 음악 공연, 이색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높이 10미터, 길이 50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워터슬라이드로 이벤트 광장의 계단을 활용해 설치했으며, 이 밖에도 대형풍, 중형풍, 유아풍, 중형 슬라이드 등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영시설이 마련됐다.

개막일인 26일에는 관악기로 편성된 브라스밴드 공연이 펼쳐지고,

현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선물 증정 이벤트가 펼쳐진다.

특히, 무더위를 피해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초대형 돔과 에어컨 쉼터, 몽골 텐트, 파라솔, 캠핑 텐트 등 다양한 그늘 쉼터와 샤워실 등 편의시설도 운영된다.

주말에는 어린이 DJ 파티와 케이팝 공연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이벤트가 준비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일반 8,000원, 임실군민 6,000원이다.

심 민 군수는 행사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 물놀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수질을 매일 점검 할 것과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 포장 상태 확인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의회,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24일, 제292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회 협의회 월례회에 제출한 '인구소멸지역의 역외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월례회는 장수군의회가 주관했으며,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장수청소년문화재단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방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수군의회는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건의안'을 통해 장수군을 비롯한 인구소멸지역의 협소한 상권으로 인해 대부분의 생필품

과 농업자재 구매가 대형 매장 한 곳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사과 주산지에 대한 과수산업 보호 대책과 조속한 가격 안정 장치 마련 등 농민 생존권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한주 의장은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현상의 현실을 반영한 두 안건이 도내 시군의회들의 뜻을 모아 채택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농가 소득 감소 농업인 대상

진안군은 2024년 쌀값 하락과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한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농업인 단체와 공동회 등을 통해 협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7월 말까지 벼 재

배 농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기준은 최근 5년 동안의 공공비축미곡 평균 매입 가격과 2024년 매입 가격과의 차액의 50%이며, 2024년 벼 재배 필지 전체에 적용해 지급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벼 재배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벼 병해충 현장 예찰 활동 강화

임실군이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벼 병해충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병해충의 확산을 조기에 막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5일부터 농업기술센터 9개 팀과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중심으로 병해충 예찰반을 편성해 도열병 및 비래해충의 발생 상황을 정밀 예찰하고 병해충 적기 방제 현장 지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벼밭구와 더불어 출수가 직전 벼에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

고 방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1차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차는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2회에 걸쳐 5,000ha 규모로 공동방제를 지원해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최근 여름철 고온 등 이상기후로 인해 각종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사전 예찰과 공동방제를 통한 선제적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100세대에 김치 나눔**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인숙)가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가 지원하는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눔터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자유총연맹여성회, 적십자임실지구협의회, 임실여성의용소방대, 임실군여성봉사회 등 30여명의 봉사자와 함께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봉사자들이 수고하여 맛과 정성을 가득 담은 담근 열감이 열무김치는 임실군수어룡역센터,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자원봉사단체 등이 추천한 폭염에 취약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 100여 세대에 전달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계북면지사협,
독거노인에 여름철 냉방용품 전달**

장수군 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5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선풍기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선풍기 등 냉방기기가 없거나 노후해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사전 조사해 선정했으며, 무더위 속에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익산 남중동행정복지센터,
(유)사각사각과 독거노인 접수리**

익산시 남중동행정복지센터는 24일 (유)사각사각(대표 권순표)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가정에 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봉사자는 사각사각 직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한 독거 노인 가정을 방문해 싱크대를 교체했다. 집이 노후돼 비가 오면 새고 싱크대가 낡아 교체가 필요한 세대로 지원책을 찾던 중 사각사각의 온기 작업단 봉사활동을 통해 새 싱크대로 교체할 수 있게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한전 전북본부, 정읍시에 기부금 1,000만 원 전달

임직원들기부에적극적참여로 참여하며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가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따뜻한 응원에 나섰다.

연원섭 본부장은 "우리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정읍을 더 행복 한 도시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따뜻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소중한 마음이 정읍의 내일을 더욱 밝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장애인일자리아사업 참여하는 김선태 씨, 군산시에 상품권 기부

돌아가신모친뜻따라나눔실천 군무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들을 자주 접하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전하고 싶었다"라며, "이번 기부가 아이들이 밝게 자라나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군산시 소룡동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일자리아사업에 참여하는 김선태 씨가 도서문화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부는 최근 돌아가신 모친의 뜻을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것으로 더욱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선태 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품권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한부모 가정의 아동 10명에게 전달해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선운산농협·대성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청소**

고창군은 선운산농협 및 대성농협과 함께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애써 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 청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숙사 청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먼 타국에서 고창을 찾아온 계절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창군과 양 농협 직원들은 화장실, 공동취사장 등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 정리를 비롯하여 기숙사 주변 환경정비 등 기숙사 곳곳을 꼼꼼히 청소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진안군 부귀면·새마을지도자협,
어르신들에 식사대접**

진안군 부귀면은 지난 23일, 부귀면 부녀회(회장 임동옥)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동수)가 함께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어르신 식사대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훈포대 수거 사업을 통해 마련된 모금액으로 마련된 뜻깊은 봉사활동으로, 지역 독거어르신 60여명을 부귀면 소재 마을회관으로 초청해 정성껏 준비한 냉면과 다과를 대접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진안=전길빈 기자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장학금 300만 원 기탁

지난 24일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는 (재)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교육 지원에 뜻을 모았다.

이은진 회장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힘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탁금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장학금 기탁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딸기잼 만들기 및 판매 행사를 진행하여 얻은 판매수익금으로 마련되었다.

(재)남원춘향장학재단 관계자는 "따뜻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은행, 완주군에 시원 키트 70상자 전달

전북은행이 완주군에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350만 원 상당의 시원(COOL) 키트 70상자를 전달했다.

24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 김영필 완주군청지점장이 참석했다.

이번 시원(COOL) 키트는 홀몸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선풍기, 여름 이불, 팔도시, 쿨 타월 4종으로 구성됐다.

기부 받은 키트상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읍·면에서 추천한 홀몸노인 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현권 부행장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전북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 백산면지사협,
독거남성 40세대에 밀반찬 나눔**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4일 저소득 독거남성 4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듬뿍 밀반찬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만든 밀반찬과 곰탕을 각 가정에 전달하면서 안부 및 건강을 확인했다. 밀반찬을 전달받은 독거 중년 남성세대는 "연일 계속된 폭우와 폭염으로 식사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말 고맙다"라며 마음을 표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여름철 에너지 절약 쿨~팁!

**냉방온도 1도 높이고
실내온도 26도 유지**

**사용하지않는
조명 소등하기**

**사용하지않는
플러그 뽑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사용**

**문 열고
냉방영양 자제**

〈一事一言〉



사과 없는 의대생 복귀, 특혜로 덮어선 안 된다

김관순
논설위원

의대생들이 집단휴학 1년 6개월 만에 일제히 복귀를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조건 없는 복귀'라는 말이 앞섰지만, 실상은 학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귀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집단 휴학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의 파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 정작 그 중심에 있었던 의대생들과 이를 방조·조장한 윤석열 정부 모두 이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외면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사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빚은 공동 붕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방치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시작했다. 정부는 의사 부족 해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내세워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추진 방식은 의료계의 최소한의 신뢰 형성조차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였다. 졸속 행정은 의료계의 반발을 부추겼고, 그 불똥은 환자와 국민에게 튀었다.

전국의 수련의와 전공의들이 줄줄이 현장을 떠났고, 학사일정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들은 대규모 휴학계를 제출했다. 결국 병원은 의료공백으로 혼란에 빠졌

고,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꺼져 가거나 위협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특히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다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도 허다했다. 말 그대로 '의료 붕괴'이자 '의료 참사'의 아비규환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복귀 선언문 한 장으로 모든 상황을 봉합하려 하고 있다. 이번 공동 입장문 어디에도 지난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진정된 사과는 없다. '정부와 국회를 믿고 복귀한다'는 표현은 그동안의 집단행동을 마치 정당한 권리 주장처럼 포장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사회적 명분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면피' 전략에 다름 아니다.

복귀 이후의 학사 처리 문제도 논란의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급 대상 의대생은 약 8천 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절반에 육박한다. 원칙적으로는 유급 처리 후 새 학기를 시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방학 중 보충수업'이나 '계절학기' 운운하며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특혜 요구이자, '형평성의 파괴'다.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 심지어 의대 내에서 정상적으로 복귀해 학업을 이어온 학생들

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조치가 받아들여진다면, 공정사회는 허울뿐인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의대 본과의 실습 교육은 단순한 출결로 대체될 수 없는 필수 과정이다. 연간 40주 이상 이어지는 이 실습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인의 최소 자질을 담보하는 핵심 교육이다. 이 과정을 형식적으로만 채운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졸속 복귀와 특혜성 학사 유연화는 미래 의료인의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 의료계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다. 처음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할 때도,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와 조율은 없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은 극대화되었고, 대통령은 '국민 생명보다 집단이기주의를 앞세운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해결 의지도, 강단도 보이지 않았다. 정책의 명분은 있었으나, 과정은 무너졌고, 그 결과 의료현장은 혼돈에 빠졌다. 문제는 지금이다. 정권이 바뀌자, 정부는 다시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당장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유연한 학사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공정한 학사 기준을 세우고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은 단지 의사 수의 증가나 복귀 선언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가를 본다. 정권 교체와 '책임 면탈'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 다소 거칠었다더라도, 그에 맞서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불모로 삼은 의료계의 고질적 행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사과 없는 복귀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무원칙한 복귀 수용은 다시금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전례가 될 뿐이다.

의료는 공공의 영역이다. 국민은 의료계가 '생명'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내는지를 보고 있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출발선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의식 위에 서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합만이 최선이다'는 식의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이라는 사회적 기준의 재확립이다. 이것이 바로,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료 대란이라는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러한 전제가 지켜질 때 만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독자광장

폼격있는 말은 그 사람을 알려주는 바로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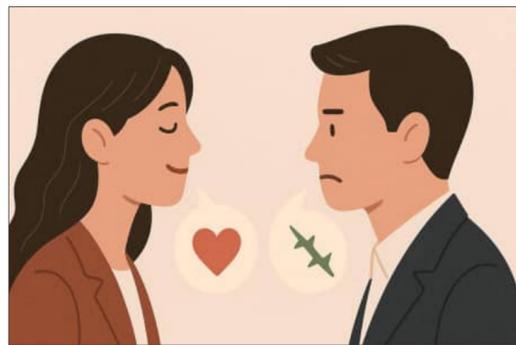


말은 사람의 내면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어른스러운 말은 화려한 말보다 조심스러운 말투로 신뢰를 쌓는다. 말실수를 줄이는 것은 곧 삶의 폼격을 높이는 일이다. 어른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살펴보면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실수를 줄이고 어른스럽게 말할 수 없을까? 주변에 말실수로 곤욕을 치르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다. 약의없이 습관적으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일파만파가 되어 평소 쌓아온 신뢰를 잃기도 한다.

급하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실수가 잦다. 어른스러운 사람들은 말보다 생각이 앞선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안다.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말실수를 줄일 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도 안정감을 준다.

평소 어른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말에 '감정'을 섞지 않는다. 화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할 때 말을 아낄 줄 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은 칼이 되고, 그 같은 결국 관계를 해친다.

어른스러운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를 말에 담는다. 감정을 삼키는 말이 때로는 가장 강한 메시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실수는 다반사다.

점잖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정확한 단어'를 고른다. 막연한 표현이나 상투

적인 말보다 맥락에 맞는 단어를 신중하게 사용한다. 같은 말이라도 단어 하나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말이 말하는 것보다 덜 말하는 쪽이 실수가 적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진다. 어른스러운 사람일수록 말이 짧고 내용이 깊다. 침묵 속에서도 배려와 생각이 느껴지는 사람이 된다.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다. 말실수를 줄이는 건 결국 어떻게 말할지보다 어떻게 생각할지의 문제다.

우리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말할 때 자주 쓰는 습관, 잘 배운 사람들의 철저히 지키는 진짜 자기관리와 공감능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를 고르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사유 깊이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말은 곧 철학이다. 말실수가 적은 사람은 말을 아끼는 쪽을 선택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의 말에는 여유와 힘이 묻어난다. 어른스러운 말투보다 사유에서 시작된다.

말실수는 자칫하면 오랜 관계를 해친다. 어른스런 말을 골라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다. 진심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용기와 힘을 전하며,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가시보다 아픈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오늘, 당신의 말에는 힘과 용기가 배어 있는가, 아니면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는가?

/정음경찰서 112상황팀장 손주현 경감

문화재 열전



송광사 목조삼전패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물, 불교공예, 장엄구
- 지정일 - 1999년 4월 23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북

전북자치도가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재생에너지, 피지컬AI, K-방산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10대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전략이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정교하게 전개되고 있고 국비 확보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올 상반기에만 산업분야 공모사업 20건에서 1천68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추경을 통해 피지컬AI 실증 사업 국비 229억도 손에 넣었다. 이는 전북이 미래 핵심 산업의 실험장이자 성장 기반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피지컬AI 분야에서의 전진은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협업지능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등이 계획되면서 AI 기반의 제조 혁신과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여기에 친환경 자동차와 탄소소재 분야에서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새롭게 지정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바이오·식품산업의 고도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방위산업 기반 강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전북대에 관련 학과가 신설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특화연구센터가 개소하면서 지역 내 국방 R&D 역량과 인재 양성 인프라가 동시에 구축되고 있다. 이는 지역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치열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수소 및 이차전지 분야 예타 대응, 산업분야 국비 확보, RE100 산단 조성 등 굵직한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향후 전북이 국가산업 전략에서 어떤 위상을 점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해상풍력 확산단지 추가 지정, 수소특화 국가산단 기반 확충 등은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첨단산업은 대부분 규제개혁과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포함한 제도 유연화 요구는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 내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해야 한다. 전북대 등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지자체, 기업 간 유기적 협력 없이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형성이 어렵다. 대학은 기술개발과 기업창업의 허브로 기능해야 하며 지자체는 이러한 역량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의 지체 없는 실행도 결정적이며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 RE100 실증단지의 입지는 결국 새만금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

전북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넘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지금이 결정적 기회다. 새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전북만의 강점 산업을 키워나간다면 전북은 신산업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전략과 실천, 제도와 협력, 속도와 비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릴 때다.

오늘의시

풀 / 김수영

풀이 눕는다 날이 흐리고
비를 몰아 오는 풀이 눕는다
동풍에 나부껴 발목까지
풀은 높고 드디어 울었다 발 밑까지 눕는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다시 누웠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날이 흐리고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풀뿌리가 눕는다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시인 약력 : 1921년 서울 출생. 1968년 교통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시인이 쓰는 시도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시대의 한계에 묶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의 시에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의 시에는 시인의 거침 없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데올로기의 울타리를 뚫어버리는 시들이 있다. 그가 살아 있다면 반공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매일)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익산지국 010-858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8-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부안군, 체류형 관광으로 여름 피서객 맞이 준비 완료!

변산해수욕장 비치킴 운영 관광택시 휴가철 50% 할인 부안 여행 스탬프 투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안군은 바다와 숲,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체류와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야간 관광, 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부안을 찾는 발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들을 살펴봤다.

■ 붉은 노을 푸른 밤, 신(新) 감성도시 부안 - 변산해수욕장 비치킴 운영

부안군은 오는 8월 2일부터 17일까지 약 보름간 변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비치킴과 해변시네마, 버스킹 공연 등 야간 체류형 콘텐츠를 새롭게 운영한다.

비치킴은 남미 감성의 오픈바 콘셉트로, 전설의 고향·특별 상영과 삼바·재즈·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해변에서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야간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안 구석구석, 관광택시로 편리하게! 여름 휴가철 50% 할인 이벤트

부안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관광택시 요금의 50% 할인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1대당 최대 4명까지 동승할 수 있으며, 3시간 코스는 기존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시간 코스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6시간 코스는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50%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

부안군민을 제외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에 따라 중간 합류나 도착지 지정 등 유연한 이용도 가능하다. 가족 단위나 고령층 등 교통 접근이 불편한 관광객에게도 실용적인 교통수단이다.

*관광택시 예약 및 이용 문의: 063-580-4712 / 부안군 문화관광홈페이지
*사전 예약제 / 3·5·6시간 코스 운영 / 코스 협의 가능

■ 짝고! 모으고! 선물받는 여행 - 부안 스탬프 투어

부안군은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며 재미와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부안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의 지역 순환을 유도하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부안군의 주요 관광지 34여 곳을 코스로 구성해, 방문 인증 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방문을 넘어 여러 지역을 돌며 머무는 여행 패턴을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소비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스탬프투어 예약 및 이용 문의: 063-580-4449 / 부안군 문화관광홈페이지

■ 해설이 있으니 더 감동적인 부안 -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부안군은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풍부한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군민과 방문객 누구나 내소사, 수성당, 청자박물관 등 원하는 관광지를 선택해 사전 예약하면 무료 해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어르신 단체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서비스 예약 및 이용 문의: 063-580-4975 / 부안군 문화관광홈페이지

■ 바다로 떠날 시간, 부안해수욕장에서 만나는 여름

부안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4일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오는 8월 17일까지 45일간 피서객 맞이에 나섰다.

부안은 서해안에서도 손꼽히는 해안선을 보유한 지역으로, 변산해수욕장을 비롯해 격포·고사포·모항·위도해수욕장까지 아름다운 해변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어 해수욕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해수욕장 인근에는 해양스포츠 체험과 서해 낙조 감상, 야간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되어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선 감성 가득한 여름 여행을 선사할 계획이다.

■ 바다와 숲을 잇는 힐링 산책 - 변산마실길

부안군은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해안 산책로 변산마실길을 추천한다.

새만금호보관에서 줄포만노을빛정원까지 이어지는 변산마실길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며, 걷는 내내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 감성적인 해넘이 명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걷기 좋은 힐링 코스다.

■ 여름꽃과 함께하는 생태 힐링 여행 - 줄포만노을빛 정원

지금 부안 줄포만노을빛 지방정원에는 여름꽃들이 만개해 형형색색의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루드베키아, 리아트리스, 버들마편초가 조화를 이루며, 방문객들에게 한 폭의 그림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수상체험, 자전거

타기, 3색 소금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마루아라 하우스펜션과 캠핑장 등 숙박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하룻밤을 보내며 소중한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 무더위 피해 실내에서 특별한 여름을! 부안 실내 체험 명소

부안군은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실내에서도 풍성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천년 고려청자의 멋을 만나볼 수 있는 부안청자박물관에서는 '도자기 따라 민화 산책'을 주제로 한 특별 기획전이 오늘 10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청자와 함께 조선 후기 책거리 민화 병풍·액자가 함께 전시되며, 민화 특유의 강렬한 색채와 독창적 공간 구성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의 생명력을 전달한다.

또한 직접 만드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운영되어 관광객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면 택배 배송되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세계 최대 간척 역사를 생생하게 전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가상현실로 미래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 역시 각각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 내 손안의 붉은 노을 - 부안 붉은노을 라이브캠

부안군은 서해안의 대표 낙조 명소인 변산 해변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부안 붉은노을 라이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저녁 붉게 물드는 하늘과 바다의 풍경이 생중계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변산의 아름다운 노을을 즐길 수 있으며 화면 속 노을이 잠시나마 여유와 위로를 전해준다.

■ 관광정보, 손쉽게 찾으세요 - 부안군 SNS 채널

부안군은 관광 소식을 보다 친근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식 SNS채널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부안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웨이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벤트, 축제 일정, 할인정보, 숨은 명소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게시하며 누구나 손쉽게 팔로우하고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택시 할인 이벤트, 축제 일정 등 풍성한 관광정보를 SNS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으로, 부안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의 관심과 방문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마실길